

사설

사고로 문단은 '신협'

조계사신협에 결국 파산 신고가 내려지고 말았다. 법원이 조계사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말로는, 조계사신협처럼 전혀 관리가 안된 곳은 처음이라 하니, 파산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너무도 당연한 운명의 결과였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또 앞으로는 어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또 다시 던질 기력이 없을 정도로 불자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심각하다. 이제 단지 신협 뿐이 아니라 불교계가 하는 일은 어찌 이렇게도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야 한다.

좀 과감하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교계에서 벌이는 사업에서 자주 문제가 터지는 까닭은 조계사신협이 불교계의 모든 문제에 운영의 최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신협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사의 운영에 치밀성을 가지기 어렵다. 아무런 세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출가자의 속성에 세속사는 안 되면 버리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

에 세속적인 일에서 일체 스님들이 실제적인 책임자의 자리를 맡아서 는 안될 것이다. 신협도 비록 따로 관리 체계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조계종 종단의 속성상 스님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관행을 벗어던지고, 일단 어떤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 시작하면 철저히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시행되는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하루 빨리 스님들이 세속사를 관여하는 방식을 벗어던져야 불교계의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스님들은 어떤 일을 벌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불교적으로 벌여야 하는가를 지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업선택과 사업의 큰 방향에 대한 이념적인 지도 역할에 철저히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역할이 분명히 그려질 때 불교계에서 벌이는 일들이 진정한 불교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계의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어중간한 출세간의 입장이 세속적인 사업에 끼어들어 얼버무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바로 출세간도 살고 세간도 함께 사는 길이다. 불교의 특성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군포교 대책 무엇인가

군포교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군생활이 긴장의 연속인 까닭에, 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떠올리며 생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군생활의 환경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군장병들은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물론 여러 종교에서 군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불교계의 관심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따지는 일은 둘째치고, 현재의 군포교 현황을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군종장교의 수는 개신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개신교의 목회는 307명이다. 반면 군종은 군목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44명이다. 법당은 348곳, 교회는 899곳, 성당은 243곳이다. 현황을 가리키는 숫자가 군포교의 절대적인 최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토대가 아직도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95년 국방부는 군종장교 가운데 조계종에서 파견하는 군종의 수를 매년 18명씩 증원, 2002년에는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불교계에 약속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약속은 군인자 비율에 의해 개신교 군목의 수를 줄이고 군종의 수를 늘리겠다는 조치였으며, 이는 개신교측의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종교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부의 결단으로 불교계는 받아들였다.

국방부의 약속이 있는 지 5년이 지났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군종의 수는 200여명이 되어야 한다. 불교계가 국방부에 요구하고, 정부 당국에서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그런지 심각하게 짚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군포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관심이 곧 포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심이 부응하는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군불교위원회'를 제정한다고 한다. 현재의 군종단을 확대 개편해 군불교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교계 첫 대안학교 문연다

실상사 중등과정 내년 3월 개교

정원 20명...발우공양·좌선 등 교육

불교계 첫 대안학교가 드디어 문을 연다.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을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인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내년 3월 실상사에 세워진다. 개신교 원불교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13여개 있지만,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일 실상사(주지 도법)가 설립 추진중인 '작은 학교'는 3년 과정의 비인간 과정의 대안 중학교이지만 귀농귀촌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맞물려 운영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학교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 과학 역사 등의 정규과정은 물론, 농사짓는 법과 발우공양, 좌선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첫 신입생은 20명 내외로 제한하며 전교생 인원은 60명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집이 먼 곳의 학생들은 2명 내외로 나누어 교사의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다.

실상사 '작은 학교'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을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전형종 학생·학부모에게 3박4일의 예비학교(12월 17~21일)를 체험하도록 해 신중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최근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실험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상사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상사가 추구하는 '살림의 삶', 건강하고 자립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실상사는 2년 과정의 승가 전문교육기관 화엄학림과 불교 생명·환경운동의 구심체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생명살림을 원칙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공동체, 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습을 겸한 귀농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도 이같은 세계관을 반영하는 일부뿐이다.

실상사는 선생님과(현재 6명)의 연수회와 작은학교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연다. 청소년 겨울학교(12월 31일~1월 5일)와 어린이 겨울학교(1월 7일~12일, 1월 14일~19일)가 그것. 오는 26일 오후 2시 실상사에서 내년 입학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가 마련되며, 과학·수학·영어·사회 전공 교사 4명을 모집한다. (063)636-3369. 김재경 기자



13일 영결식을 봉행한 혜공스님의 법구가 문도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보령사로 이운되고 있다.

"사바왕생 중생 제도하소서"

관음종 혜공종정 다비식 관음종 제5대 종정 운공당 혜공 대종사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던 천안 보령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장(葬)으로 엄수됐다. 33번의 명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현행 및 현화, 행상소개, 영결사, 추도사, 조사, 찬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사에서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인

"달라이라마 연내방한" 재촉구

KCRP·조계종 성명...중대사 발언 '물'

달라이라마 방한 예정일이었던 16일을 전후해 달라이라마 방한을 다시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 그러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대사는 또한번 달라이라마에 대한 국언을 서슴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종교인권화회의(KCRP)는 11일 고문단과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입국을 연내에 허용해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방한을 불허한 당국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15일 폐회된 148회 정기중앙총회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총회는 결의문에서 "달라

이라마의 방한은 세계인류의 화해와 평화를 지지·성원하는 한 민족의 모습을 외화(外化)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경시하며,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16일 한국언론재단 초청 조찬 강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와 관련, 미국, 영국 등 서방열강과 달라이라마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한국내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계속 망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정부의 사과와 우다웨이 대사의 소환·파면을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총장 증범스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는 16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승가대 총장에 증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장에 선출된 증범스님은 "김포혁신 이전으로 대학교정이 마련되는 만큼 승가학원구원을 교육이념으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며 "승가대가 어려움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지만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승가대학은 승가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승가정신구원을 중심으로 행정을 맡으면 연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승가정신구원은 승가전통성과 현대성에 필요한 현실성, 그리고 미래지향성 등 3박자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승가대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증범스님은 1963년 통도사에서 벽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9년 유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도서관장, 선어록연구회 회장, 삼보법회 교양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현대만평 박구원

붕괴 조심

3개특위 구성 등 안건처리

조계종 148회 총회

조계종 148회 중앙총회는 동국대 조사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등 15개 안건을 처리하고 14일 폐회했다. 불기 2545(2001)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은 12월초 임시총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로의원 추천: 상운(광주 향림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춘(범어사) 스님 등 3명을 원로의원으로 추천.

총무원 위임장 사직 처리: 종현특위 위임장에 종하스님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보선: 현승스

김정순 기자

大韓佛敎三論宗 宗團葬儀委員會 ·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葬儀委員

證明: 덕암, 천운, 일공, 석우
 願門: 청호, 정일, 설운, 능운, 성운, 가규, 의천, 월산, 혜승, 진무상
 護喪: 각하

葬儀委員會 委員長: 혜승
 副委員長: 지혜
 委員: 도경, 경운, 도우, 지암, 법관, 향담, 덕운, 지명, 지안, 태관, 인봉, 영도, 덕승, 청담, 지산

日本三論宗葬儀委員長: 지마
 執行委員會 委員長: 석파
 副委員長: 진봉
 委員: 현우, 의보, 무봉, 성훈, 옥광, 성현, 달봉, 지삼, 토암, 해마, 보현, 역일, 해봉, 무성

財政委員會 委員長: 기의호
 副委員長: 김광수
 委員: 지호, 혜각, 도광, 의봉, 성원, 벽파, 지암, 달봉

指導委員會 委員長: 법진
 副委員長: 성도
 委員: 지창, 성도, 혜담, 지선, 성심, 혜원, 지운, 태서, 보현, 법연, 법신, 혜인, 지안, 대공

義典委員會 委員長: 신수
 副委員長: 지운
 委員: 지운, 혜명, 혜관, 보진, 법진파, 봉명, 무암각, 대덕화, 성아지학

葬儀委員會 委員長: 대안

涉外委員會 副委員長: 지도
 委員: 법문, 묘지심, 지법, 성관, 일행, 성인, 지도, 혜인, 조남득

勸募委員會 委員長: 혜광
 副委員長: 지연
 委員: 원보, 법진, 김순옥, 진여심, 대덕화, 보현행, 성관, 보현화, 보연, 자비행, 자비심

治山委員會 委員長: 정봉
 副委員長: 지경
 委員: 지인, 보리심, 도심, 선덕행, 자비행, 보운행, 보현, 용선, 최수동, 임화향, 김옥녀, 황혜연, 이경훈, 석운, 다승

門中代表: 향운, 백운, 혜공, 대운, 대심
 法座上座: 승봉, 상봉, 원봉, 원봉, 강봉, 기봉, 영봉, 연봉, 회봉, 효봉, 수봉, 태봉, 문봉, 은봉, 경봉, 보봉, 진봉, 목봉, 우봉, 덕봉, 지봉, 동봉, 선봉, 광봉

의덕, 의승, 의관, 의성, 의광, 의고, 의천, 의덕, 의원, 의선, 의봉, 의안, 성원, 법연, 진오, 성법, 지경, 지호, 성희, 지마

산상좌: 혜각, 일각, 영운, 혜명, 혜안, 혜련, 혜인, 성덕, 혜경, 혜진, 성득, 혜초, 혜성, 법달

比丘尼: 지연, 혜운, 법각, 법진, 지운, 성학, 혜원, 일선, 용선, 지향, 성심, 지화, 응진, 지경, 혜인, 도연, 도영, 지경, 혜명, 혜경, 혜안, 혜연, 혜련, 도심

信徒代表: 배사옥, 윤원주, 방대명화, 박도안, 송마명

문의 및 연락처: 총무원 전화 02)3216-0165 / 팩스: 02)3216-0166

大韓佛敎三論宗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葬儀委員會

訃告

大韓佛敎三論宗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께서 佛紀 2544年 11月7日午前8時 世緣이 다하여 入寂 하엿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佛紀 2544年 11月11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愚岩精舍 大道場

■ 茶毘場: 靑龍寺址 茶毘場

大韓佛敎三論宗 葬儀委員長 慧承

大韓佛敎三論宗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葬儀委員

인사말씀

大韓佛敎三論宗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을 宗團葬으로 佛紀 2544年 11月11日 宗團의 元老 스님 및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 하엿습니다. 公私間 多忙 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에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오며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 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人사를 올리오니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 바랍니다.